



» CONTENTS_ 연구원소식 | 사진으로 보는 8월 연구원 행사 이모저모 | 유비쿼터스기반 무인헬스케어시스템 설치 방안 | 경제동향

대발연 - 중국대련인민정부발전연구센터 맞손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교류 협약 및 한·중 공동세미나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와 중국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센터(원장 이재)는 8월 21일(화)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아시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상호 학술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식과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협약은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이며 경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대련시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대련시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센터와의 상호 학술 교류를 통해 대전시와 대련시가 상생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상호 방문, 연구교류,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날 교류협약식에서 이창기 원장은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0주년 된 뜻 깊은 날이다. 이런 시점에 대련발전연구센터와 협약을 갖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시아 자본주의가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이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하고 도시적으로는 대전과 대련, 후쿠오카가 리더도시가 될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고 말하며, "앞으로의 아시아 시대를 위해 한·중·일 3개 연구원이 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 출발은 정치적, 이념적 거부감이 없는 문화산업교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고 말하였다. 이어 이재 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대련과 대전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환경 등 여러분야에 걸쳐 동반성장해 나가는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또한 "아시아의 대표인 한·중·일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아시아공동체 형성하는데 적극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마친 후, 권선택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산업 교류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앞으로 대련시와 대전시 간의 문화산업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왼쪽 이창기 대전발전 연구원장 오른쪽 이재(Ilca)대련발전 연구센터 원장〉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2012 국제유스텔리 대전 공동 개최

- 아시아청소년 1천명 대청호오백리길 행진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와 한국유스호스텔연맹(총재 유재건)은 13일 대청호 잔디광장에서 광영교 대전시의회의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이석호 한국유스호스텔연맹 부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국제유스텔리를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지구, 인터넷 중독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7일까지 대전과 수도권지역에서 열리며 14개국 청소년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개회식과 함께 열린 대청호오백리길 국제청소년걷기대회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협동심, 인내심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심성과 글로벌마인드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참여한 지안리안(Jian Liang)군은 "한국은 처음 방문이며, 아름답게 잘 꾸러진 대청호를 걸어 기분이 좋고 외국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면서 "특히, 이번기회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원장은 대청호 환경선언문 채택에 관하여 "현재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과제를 인지하고, 물의 소중함과 청정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청소년들의 작은 실천"을 당부했다.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유재건총재는 "이번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 얻는 지식, 공동체 정신등과 더불어 꿈을 이루기 위한 사회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가자들은 2014년 UN CBD총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지지하는 'UN CBD Asia Youth 모의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박중독 예방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발전연구원과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은 향후 청소년체험활동과 건전한 여행 문화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세미나 개최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대전상공회의소와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8월 8일(수) 10시 30분, 오페라웨딩홀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현재 충청권 경제분야에 있어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 언론인, 전문가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펼쳐진 열띤 토론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해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경제, 정치권, 지역주민, 기업인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의견을 좁혀나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뜻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류덕위 한밭대 교수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충청권은 지방은행 설립과 지역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중소기업대출, 산업지원 강화를 이끌어 내고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 지역금융경제 정보센터 기능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국가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충청권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충청권 지역주민전체 중 78.9%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임상일 대전대교수는 “발표의 주된 주장인 충청지역기반 지방은행 신설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세계화, 대형화, 전문화, 겸업화, 지역 밀착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방은행보다는 금융지주회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범위는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포함한 약 600만 명을 포함하는 광역규모로 지자체, 금융권, 지역 상공인에 의한 삼각연대 편성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향후 보다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치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역할과 기능은 일반시중 은행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초 설립방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제한한 여러 방식 중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설립하는 것이 초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충북지역의 무너진 지역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지역은행 설립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재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의제에 대해 충북지역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충북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져 충북도민의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충북도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금융산업 발전을 모색하면서 그간의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보여주었던 충청권 공조의 큰 틀 속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선 공약으로 의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워크숍 실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워크숍”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및 정책 멘토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8월 27일(월)에 실시하였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은 지난 7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정책 사업 모니터링 실습의 기회를 가졌다.

8월 한달 간 모니터링단은 현재까지 대전지역의 문화체육관광사업, 여성안전, 도시공간 및 환경 정책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실행 과정과 그 결과를 시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6명의 모니터링단 활동가들이 한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활동내용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정책 멘토와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중구 대흥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라는 문제의식으로 현재 대흥동 일대의 여성안전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 인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어르신 및 이용자가 불편한 공원, 어두운 거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보행로 및 통행로의 정비, 지역주민참여회의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안전을

위한 가로등 및 조명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공사가 중단돼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 인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와 어르신과 이용자가 불편한 공원, 어두운 거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042-530-3548)로 할 수 있다.



“ 대전발전연구원 발전기금출연 전달식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대전발전연구원 이사장)은 2012. 08. 14(화) 대전광역시 시장실에서 박종덕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 대표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사업비를 위한 출연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정책기획관이 참석하였으며, 전달받은 출연금은 2011년~2025년(15년간) 동안 받게 될 총 36억 원에서 1차분(2011~2012년)인 3억 6천 만 원이다.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이창기 원장은 ‘물심양면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 준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에 감사하며, 대전시 교통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 대련민족대학 교수 초청 특강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는 8. 16(목)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자 중국 대련민족대학 윤경애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윤경애 교수는 ‘한류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에 대한 고찰’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였다. 윤 교수는 한국에서 오랜 유학생활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문화를 몸소 체험하였고 중국에서는 중국학생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을 강의하고 있다.

이날 윤 교수는 “한류 현상은 중국에서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되면서 중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현상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류의 성격과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양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원인을 실현하며, 나아가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원활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류에 대해 중국인들의 다각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화현상으로서의 한류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중국인들의 시각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향후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재현하고 나아가 중한 양국의 심도 있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나타내었다. 윤 교수의 특강 후 이어진 토론에서 연구원들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한·중 간의 역사, 경제, 문화방면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언론간담회 개최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주혜진)와 대전여기자클럽(회장 한성일), 김용분 대전시 여성시민통합특별보좌관의 정책 간담회가 22일 유성 샤프레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사업 공유와 개선안을 수렴하고 성인지관점과 성 주류화 확산에 언론 홍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으며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주혜진 센터장은 “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대전성평등 정책포럼과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킹에 힘쓰고 있다”며 “지역 여성 리더십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워크숍, 성인지예산제도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성 주류화 전략실천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분 여성특보는 “지난 7월1일자로 여성시민통합특별보좌관에 임명된 뒤 여성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통합 역할을



하고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걱정되는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도와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여성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대학 다니기 좋은 대전 만들기 토크콘서트 ”

- 우리가 원하는 진짜 대학생활은?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8월 28일(화),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 유니브엑스포와 공동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창기 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연구진들과 대전·충청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유니브엑스포 500여명이 참석해서 지역대학생으로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과 에로사항을 털어놓는 한편, 대전시에 바라는 점 등을 진술하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대학다니기 좋은 대전 만들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한 학생위원장(충남대, 경영학과3)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인 대전은 문화 활동도 미비하고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등 취업에 관련한 정보가 수도권 학생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심하여 문화 활동 및 취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한 대학생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자체의 대학생활 지원의 필요성, 대학생 지원 실태, 대학생 지원 방향 및 전략, 대학생 의식 및 지원정책 요구 조사에 관한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대학과 지역의 연계가 중요한데 그 이유로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고, 지역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조직간 상호작용 및 제도적 집약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인 지역학생들과 소통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여러 대학생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즐길만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대학졸업 후 대전의 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일자리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및 지역인재 지원 강화, 대전시의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한편, 유니브엑스포는 오는 10월 5-6일 양일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앞에서 ‘국내최초, 최대, 최고의 대학생 (대외활동) 박람회’라는 주제에 맞게 40여개의 대학생 연합동아리, 기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외활동 단체가 부스 형태로 들어오며, 공모전 전시, 음악공연, 유명인사의 강연 등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개최된다. [j](#)



“ 2012 중구포럼 정책세미나 ”

대전 중구는 22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박용갑 중구청장, 이창기 중구포럼 수석대표, 강호계 공문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김영모 중구포럼 이사는 ‘중구 도심활성화 사업에 관한 포럼, 문화 흐름 중교로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업의 성공요소는 구역별 특성화 전략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이사는 “중구 구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개발과 경제 유발효과를 위한 마케팅 요소의 조화, 고객편의와 효율성의 지향으로 시민 및 고객 중심의 사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박사, 중부대 양우창 교수, 응능정이 상인연합회 이진화 회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박인중 본부장, 김영모 중구포럼 이사의 초청 토론과 세미나에 참석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발표로 진행됐다. 박 청장은 격려사에서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큰 축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도록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세미나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지 주변 상인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

사진으로 보는 8월 연구원 행사 이모저모

- 1
- 2 3
- 4 5 6

- 01. 중국대전발전연구센터 대전발전연구원 방문
- 02. 중국대전발전연구센터 방문단 대전행정부 시장과의 면담
- 03. 2012 국제유스래리
- 04.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 세미나
- 0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스마트그린시티 구축전략
- 06.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언론간담회 모습



- 7 8
- 9 10

- 07. 대학다나기 좋은 대전 만들기 토크콘서트
- 08. 대원민족대학 윤경애 교수 초청 특강
- 09. 중구 포럼 정책 세미나
- 10. 대전발전연구원 발전기금출연 전달식

유비쿼터스기반 무인헬스케어시스템 설치 방안

도시기반연구실책임연구위원 이 재 영

1 U-헬스케어서비스의 필요성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세계보건기구, 1948)를 말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있어 최고 수준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살기좋은 지역사회와 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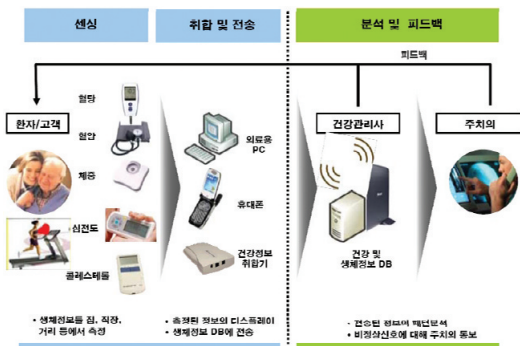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의존율이 더 높아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웃 및 구성원의 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료복지에 대한 소요는 곧 재정지출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또 다른 복지기회를 박탈하며, 그 영향은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의 예방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 IT기술의 발달은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기반 헬스케어서비스(이하 U-헬스케어서비스)”가 그것이다. U-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도시의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U-헬스케어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2 U-헬스케어서비스 개요 및 서비스 내용

2.1. U-헬스케어서비스개요

U-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헬스케어시스템은 크게 생체신호 센싱부, 생체신호 전송 및 모니터링 부문, 분석 및 피드백 부문으로 구분된다. 생체신호 센싱은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나 환경센서를 이용하여 심전계, 뇌파계, 근전계, 혈당계, 혈압계 등의 측정을 의미한다. 또한, 전송 및 모니터링부문은 취득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통계처리하기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개인에게제공 및관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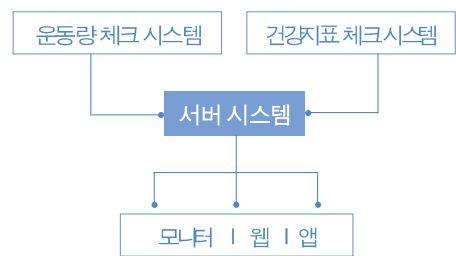
〈그림 1〉 U-헬스케어서비스 기본 개념도

2.2. 지자체 적용가능한 U-헬스케어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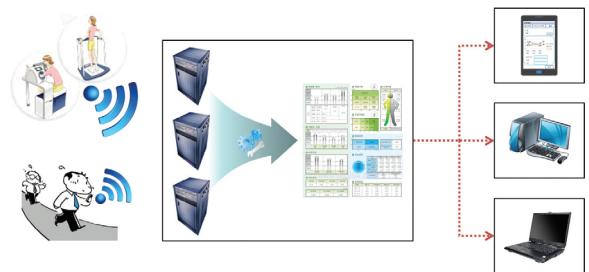
현재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U-헬스케어서비스는 운동량 체크기능, 건강지표체크기능, 종합분석기능 등이다. 먼저, 운동량 체크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는 팔찌 또는 카드를 이용자가 소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일정한 간격(약 1km)에 설치된 RFID Reader 기를 통하여 이용자의 ID와 통과시간 등을 확인하여 서버에 전송한다. 또한 GPS 및 G-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운동량체크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건강지표 체크'는 체지방분석기와 혈압계가 있는 건강 체크 부스를 운동구간 및 출퇴근 구간에 설치하여 체중, 세포내액, 세포외액,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근육량, 체지방율, 복부지방율, 수분함량율, 비만도, 혈압등을 측정하고 이를 Database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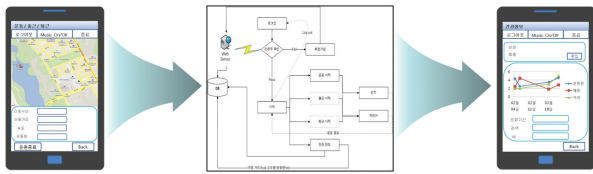
이러한 데이터는 '서버시스템'을 통하여 일간 통계 및 기간별 통계 등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을 통하여 운동량에 따른 건강지표의 변화 및 적정운동량과 식사량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측정 및 분석결과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데이터 및 분석 내용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량 변화에 따른 건강지표의 상관관계 변화를 제공한다.



〈그림 2〉 건강지표 체크 시스템 구조도



〈그림 3〉 건강지표 체크 시스템 개념도



〈그림 4〉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과 제공

3 적용기술의 시장성 평가

본 사업의 시장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의 안정성과 시장성이 요구된다. 특히, 시장성의 경우, U-Wellness의 잠재 시장은 매년 평균증가율이 14.1%로써 향후 5년간 시장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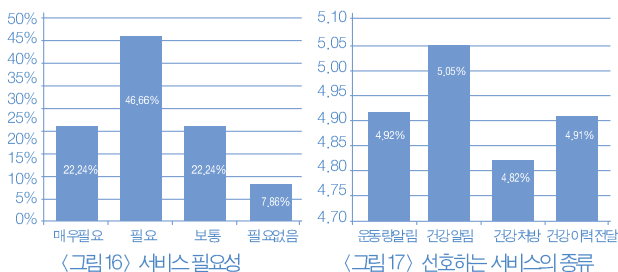
따라서, 본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시장성 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는 의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U-health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시장성 평가 종합

U-Health 서비스	요소기술	시장성 평가					
		타당성	파급성	활용도	시장성	사업성	
운동량 체크 시스템	RFD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매우높음	
	GPS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높음	높음	
	유선통신	전송매체	보통	높음	보통	높음	보통
		ISDN / ADSL / HDSL / VDSL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보통
	광대역무선통신	WiFi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LTE	높음	매우높음	높음	높음	높음
이동전화통신	3G WCDMA / HSPA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보통	
	3D 디스플레이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건강 지표 체크	바이오센서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하중센서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압력센서	높음	높음	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분석/정보제공 서비스	USN 미들웨어	TinyDB	높음	높음	높음	높음	
		DSWara	보통	보통	보통	보통	
		Impala	보통	높음	보통	낮음	낮음
	암호/인증/권한관리	암호	보통	높음	높음	보통	보통
		통합계정관리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DB보안	보통	보통	높음	보통	보통	

4 이용자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U-헬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요를 조사하였다. 2012년 5월 2일부터 4일간 김천변, 샘마리공원, 유림공원, 남문광장, 계족산, 수통골등 운동을 위해 다수 사람이모이는 곳에서 진행하였으며 분석 표본은 536명이었다. 서비스에 대하여 68.9%가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서비스중에서는 건강알림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6〉 서비스 필요성

〈그림 17〉 선호하는 서비스의 종류

한편, U-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본사업의 편익비는 2.20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투자비용의 회수 시점은 공용후 3년후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2〉 U-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한 경제성분석결과(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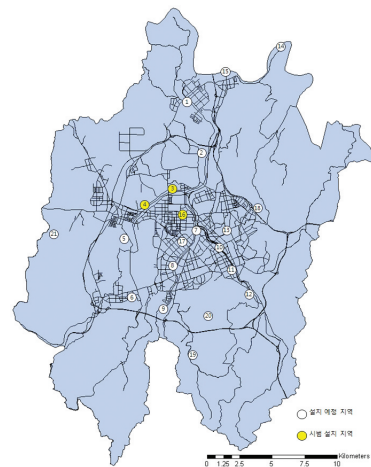
구 분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C	IRR(%)
분석결과	5,393	11,883	2,20	6,490	55.6

*주)할인율 55%

5 대전시 시범운영 방안 및 제한

본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3대 하천변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시설(부스의 간격을 4Km내외로 설정하고, 3대 하천 이외의 지역은 인간 이용 인구가 많은 도시 자연공원 및 체육공원 또는 관광지 및 주거지 인근을 선정하였다

설치시스템은 운동량 체크, 건강지표 체크, 서버, 웹페이지 등 47지이며, 스마트폰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선택적으로 추가된다. 총사업비는 단가에 약 1,889백만원, 장기적으로 운용기금을 고려하면 약 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 1 송마미울 인근 천변공원 | 2 엑스포 아파트앞 | 3 한밭수목원 내 |
| 4 유림공원 내 | 5 만년교 | 6 잠수교 |
| 7 삼천교 | 8 가장교 | 9 재사정교 |
| 10 무명교 | 11 대동동 우체국앞 | 12 가오교 |
| 13 성산교 | 14 금강로하스대청공원 앞 | 15 대덕구민체육공원 내 |
| 16 햇님아파트앞 공원 내 | 17 남산공원 내 | 18 기양공원 내 |
| 19 뿌리공원입구 | 20 노은산공원입구 | 21 수통골입구 |
- 총 21개소

〈그림 7〉 헬스케어서비스 예정지 위치도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를 수용하고 검증하여 최종적인 시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한 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세금이며, 효과와 부작용까지도 무엇이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보수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왕에 도입코자한다면 유지 및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경제는 전월대비 고용의 호조와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물가도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비가 위축되고 수입이 감소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고용이 악화되고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생산과 소비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지난달의 2.2%에서 1.2%로 대폭 하락하여 최근 물가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 이후 2개월째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의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경기종합지수

- 2011년 내내 하강국면을 보였고,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 이후 2개월째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 산

- 2012년 6월, 전월대비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지난달의 부진세에서 개선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지난달 다소 주춤하였으나 다시 호조세를 보임. 향후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다소 조정받을 가능성 있음.

소 비

- 2012년 6월, 민간소비는 전월대비 대형소매점 판매와 전력 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백화점 판매와 연탄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매우 위축된 모습이나 전년동월대비 호조세를 보였음. 향후 소매판매는 물가, 임금 등 소비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고 용

- 2012년 6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가 5개월째 증가하고, 실업자 및 실업률도 4개월째 감소하여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는 증가하였지만 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여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물 가

- 2012년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내구재, 섬유제품, 전기·가스·수도, 개인서비스에서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 석유류 공공서비스 등에서 하락하여 0.2% 하락함. 물가상승률은 지난 달의 2.2%에서 1.2%로 대폭 하락하여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임.

금 용

- 2012년 7월,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 및 주요국 경제 지표 부진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병존하며 혼조세를 보였음.

대 외 거 래

- 2012년 6월 수출은 전월대비 농림수산물, 기계류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화학공업제품,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중심으로 감소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지난달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등한 반면, 수입은 4개월째 감소하였음.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흑자폭은 지난달까지 2개월째 대폭 축소되었으나 6월 들어 대폭 확대되었음.

